



12면

이기간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전북도민 문화 향유 확산 최선"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윤 4월 19일) 제255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道 '포스트 코로나' 생존전략 가동

경제활력화 비대위 열고 일자리 등 세부추진과제 7개분야 45개 과제 발굴

전라북도야 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항해를 본격화 했다

도는 9일 포스트 코로나9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제1차 전북도 경제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일자리, 경제 분야의 세부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앞서 전북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실무회의를 통해 7개분야 45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우범기 정부부지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화 비상대책위는 유관기관과 경제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7개 분야에 대한 정부 동향과 관계기관 협력 등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분야별 발굴된 과제의 중점 추진 방향은 비대면 비즈니스, 온라인 서비스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선도형 경제 전환 추진과 코로나 19 직접 피해 및 고용불안, 금융위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혁신적 제도 개선과 기반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있다.

각분야별 주요 추진과제에서 일자리 지키기는 "우리 일자리 지키기 지원사업"을 통한 노사 상생을 위해 기업의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 임금 감소분의 일정비율(30%)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 키우기는 '신중년·청년 일자리 두배로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의 신중년·청년 추가채용 촉진지원, 대상인원과 지원금액을 두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를 활용한 새일자리 만들기는 비대면 IT 활용 가능한 민간 기업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을 지원, 우수기업 전기차 전문기업, 여성친화기업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취업박람회 열여 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디지털 골목상권으로의 전환



'시원한 물줄기 뿜어내는 분수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9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의 분수대가 시원하게 물을 뿜어내고 있다.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생활플랫폼인 소상공인 통합앱(가칭 '오늘의작')을 구축, 소비트렌드에 맞춘 스마트한 우리동네 골목상권 만들기를 추진한다. 또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사는게 즐거워진다)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의욕을 고취, 상가 거리에 서 버스킹 등 문화행사, 이벤트, 마케팅 행사 등 북적북적 우리동네 골목가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저신용자 전용 특별보증 신설, 유흥업소에 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전북희망론"을 신설,금융소외계층의 가계인정 및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과제를 추진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25개 기관이 참여,기관별 보유자원 공유 및 정부사업 공동대응을 위한 창업 거버넌스 구축한다.

우리도의 벤처캐피탈 초기 투자자 부족에 따른 신규 특화 펀드 조성,과 전북도의 초기 투자자들을 도에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금융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체계적인 육성시스템 구축, NPS 비데이터 분석 혁신센터 및 전북 특화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또한 국외(베트남)에 신남방 글로벌 창업거점으로서 스타트업 집적공간을 조성,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기술창업 생태계를 축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에 전북도는 투자인센티브를 활용한 타깃기업을 발굴, 리쇼어링 기업유치를 위해 새만금 5공구에 전용 임대단지를 지정, 기반시설 설치비, 이 전비용 추가 지원을 담은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 정부 인센티브 개정에 맞춰 우리도의 추가 지원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차전지 소재업체 R&D 지원, 중대형 2차 전지 시험인증 센터구축, 테스트베드구축, 2차전지 생산업체 유치, 유출방지 등 에너지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를 구축 할 계획이다.

도는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및 수출 활력을 제고 '중소기업 오! 필생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기술인력 유출방지 및 전라북도 언택트 콘텐츠 활성화 공과(국비25억)구축, 전라북도 컴업 기업지원사업(국비 25)을 통해 비대면 문화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 전북에 투자한 기업의 안정적 정착 전북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할 예정이다.

또한 코트라(84개국 127개무역관),

경진원(25개국 50개 파트너)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 온라인플랫폼 해외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비대면 수출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사회적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유통조직을 설립,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기업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조성,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 혁신터운'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한 45개 중점과제를 실무위원회를 통해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정부부지사는 "포스트 코로나는 당장의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경제체질을 갖춰가는 것이다"며 "이번에 마련한 포스트 코로나9 추진계획 세부과제가 경제회복의 불씨를 일으켜 일상으로 복귀 흐름을 가속화, 경제 정상화를 위한 희망과 기대감도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전주발 '해고 없는 도시' 전국서 '벤치마킹' 예감

서울시 등 각 지자체, 비슷한 정책 준비 중

정부가 고용유지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제3차 추경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다양한 고용유지 대책들을 내놓았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 해고 없는 도시와 비슷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기존의 무급휴직 지원금제도보다 완화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는 1개월 이상 무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의 경우에만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정부대책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개월의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또 다른 고용유지정책은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이다. 자금이 부족해 당장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휴업수당 지급이 어려운 사업장이 대상이며, 고용유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융자 목적이 인건비 지급으로 확인되면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정책처럼 노사 간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고, 세부조사 유예(3년)와 정부 재정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각 지자체들도 정부의 이러한 고용유지 대책에 발맞춰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준

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민주노동·한국노동총과 '해고 없는 고용노동 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해고 없는 도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구로구 등 서울시 산하 25개 구로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4월21일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해고없는도시대책반과 위기복지대책반, 마음치유대책반 등 3개 반으로 된 '위기 극복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강력한 민생안정대책을 펼쳐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전주시의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은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이라며 "전주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 운동으로 번져 나갔던 것처럼 '해고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전국으로 확산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선언 이후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79개 사업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500개 이상의 사업장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주시는 조만간 동참 의사를 밝힌 사업장들과 2차 상생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지러는 개인과 가정, 지역을 지키는 일종의 사회적 방파제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전주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대량의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해고 없는 도시로 가는 상생의 길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전대미문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